

광주도시공사, 창단 첫 PO '가시화'



강경민 김지현 최지혜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선수·지도자 하나된 '코트 투혼' 역대 최고 리그 4위 안착 오늘 3.5게임차, 5위 대구와 맞대결 승리맨 사실상 확정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하 광주도시공사)이 2010년 창단 이후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21일 현재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승점16)는 5위 컬러폴대구(승점9)에게 승점 7점(3경기)차 앞서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정규리그에서 22일 컬러폴대구와의 경기를 비롯해 3라운드 6경기를 남겨놓은 상태다.

광주도시공사는 컬러폴대구와의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컬러폴대구를 상대로 1승1무를 거뒀다. 또한 인천시청과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2승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광주도시공사는 3승1무2패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6경기를 남겨놓은 컬러폴대구는 올해

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만 승리했고, SK슈가글라이더즈, 인천시청, 서울시청, 부산시청 등에는 패했다. 따라서 컬러폴대구가 남은 3라운드 경기 중에서 4승 이상을 거두며 광주도시공사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라운드로 축소된 지난 시즌 4승3무7패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6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그 돌풍은 이번 리그에서 태풍으로 발전했다.

광주도시공사가 '만년 꼴찌'에서 위협적인 팀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2019년 5월 새롭게 사령탑으로 부임한 오세일 감독이 중심에 있다.

오세일 감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을 떠난 강경민을 설득해 코트에 복귀시켰고, 국가대표 출신 원선필을 영입해 공격력을 강화했다.

체력 강화 위주의 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리그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김지현은 광주도시공사의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가대표출신 손민지와 경남개발공사의 핵심 멤버였던 정현희를 새로 영입해 경기력도 한층 더 보강했다.

정신적으로도 큰 성장한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은 이제 경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뛰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7일 삼척시청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을 7대11, 4점차 뒤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후반전을 11대7로 앞서며 18대18 무승부 경기를 마감하는 투혼을 보여줬다.

오 감독은 "아직 준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은 아니지만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남은 경기 준비를 잘해 창단 첫 세 역사를 쓰겠다"라며 "매주 주말마다 코트에서 투혼을 발휘해 준 선수들의 열정이 좋은 결과로 결실 맺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22일 오후 8시 리그 5위인 컬러폴대구와 3라운드 2차전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철인' 송승민 영입

광주서 데뷔·필드 플레이어 최다 연속 출전...포항서 1년간 임대

프로축구 광주FC가 '철인' 공격수 송승민을 영입했다.

광주는 21일 "광주 유니폼을 입고 네 시즌간 활약했던 측면 공격수 송승민(29)을 포항스틸러스로부터 1년간 임대 영입했다"고 밝혔다.

프로 8년차인 송승민(186cm·77kg)은 뛰어난 순간 속도, 통료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다.

최전방 공격수까지 소화 가능하며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공격전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다.

2014년 광주에 입단한 송승민은 프로 첫해 19경기를 소화하며 팀의 승격에 기여했다. 이후 네 시즌간 130경기 12골 11도움을 기록, 팀의 핵심 선수로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8년 포항 이적 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바탕으로 시즌 중반 K리그 통산 필드 플레이어 역대 최다 연속 출장(104경기, 2015.8.23~2018.7.07)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철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K리그 통산 173경기 15골 13도움.

김호영 광주FC 감독은 "송승민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활동량과 연계,



광주FC가 포항서 1년간 임대 영입한 송승민. <광주FC 제공>

현신은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광주를 잘 알고 있는 선수만큼 경기장 안팎에서 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승민은 "광주는 내가 프로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감사한 팀"이라며 "4년만에 친정팀에 복귀한 만큼 신인의 자세와 절실한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모든 걸 쏟아부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안세영, 태국오픈 8강 진출

한국 배드민턴 여자단식·복식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과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 조가 나란히 토요일 태국오픈 8강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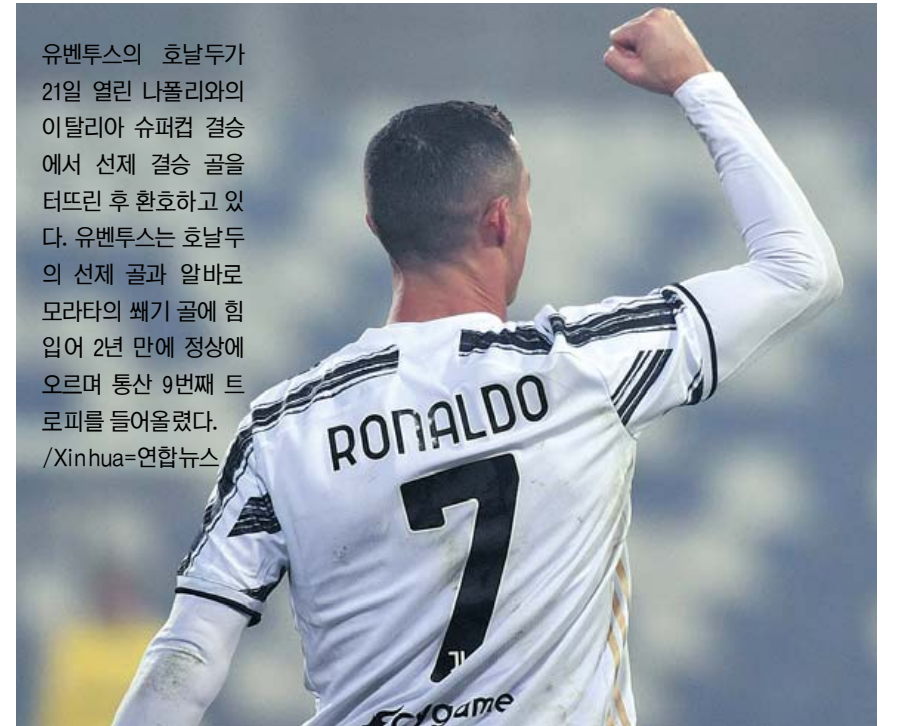
여자단식 세계랭킹 9위 안세영은 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 0 토요일 태국오픈 16강전에서 여자단(싱가포르)을 34분 만에 2-0(21-15 21-7)으로 제압하고 8강에 합류했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

찬 조도 아나스타시야 악추리나-올가 모로조바(러시아) 조에 2-0(21-13 21-11)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8강에 진출했다. 혼합복식 세계랭킹 6위 서승재(삼성생명)-채유정(인천국제공항) 조도 8강에 가세했다.

안세영, 이소희-신승찬, 서승재-채유정 모두 지난주 열린 요넥스 태국오픈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22일 8강전에서도 승리하면 2주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한다. /연합뉴스

'호날두 결승골'...유벤투스, 9번째 이탈리아 슈퍼컵 우승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21일 열린 나폴리와 이탈리아 슈퍼컵 결승에서 선제 결승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선제 골과 알바로 모라타의 패시브 골에 힘입어 2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통산 9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Xinhua-연합뉴스

'메날두+레반도프스키'...UEFA '2020 올해의 팀'

2020년 유럽 축구를 뜨겁게 달군 '베스트 11'의 화려한 면모가 공개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 UEFA 올해의 선수(Team of the year 2020)'를 발표했다.

'UEFA 올해의 팀'은 'UEFA.com' 회원 약 600만명의 투표, UEFA 테크니컬 패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4-2-3-1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선정된 베스트 11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가 차지했다.

2020년 총 44경기에 출전해 47골을 쏟아낸 레반도프스키는 2019-2020 UEFA 올해의 선수는 물론 UEFA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FIFA 올해의 선수까지 휩쓸었고, UEFA 올해의 팀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왼쪽 날개에는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뽑힌 가운데 '메날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는 각각 오른쪽 날개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정됐다.

미드필더 두 자리는 케빈 데브라워너



2020년 UEFA 올해의 팀 <(UEFA 홈페이지 캡처)>

(맨체스터 시티)와 티아고 알칸타라(리버풀)가 차지했다.

포백(4-back) 수비라인은 알폰소 데이비스(바이에른 뮌헨)-피르질 판데이크(리버풀)-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요슈아 키미히로 구성된 가운데 골키퍼는 마누엘 노이어(이상 바이에른 뮌헨)가 선수를 받았다. /연합뉴스

'통산 500승' 신진서 춘란배 바둑 결승행

신진서(21) 9단이 개인 통산 500승을 달성하며 세계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다.

신진서는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펼쳐진 제13회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중국의 렌샤오 9단에게 207수 만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중국이 주최하는 대회여서 덩이 7집반인 춘란배에서 신진서는 이날 흑을 잡고 중반까지 미세하게 끌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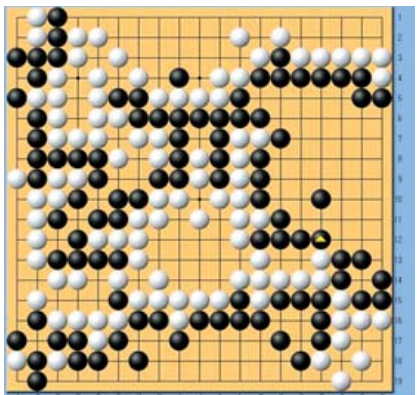
렌샤오의 안정된 운영에 좀처럼 틈을 찾지 못하던 신진서는 후반으로 접어들며 오히려 집 차이가 벌어져 패색이 드러났다. 특히 좌상변의 흑 대마가 풍광 잡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에서 렌샤오가 다소 한가한 수를 뒀고 이 순간을 신진서는 놓치지 않았다.

재빨리 상대 집을 깨며 대마를 살린 신진서는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당황한 렌샤오는 초읽기마저 몰려 실수를 연발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신진서는 렌샤오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응징하며 짜릿한 승리를 누렸다. /연합뉴스



춘란배 준결승 신진서(흑) vs 렌샤오 기보 <(사이버오 기보 캡처)>



21일 열린 전남도체육회 법인화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과 이완식 준비위원장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민선 전남도체육회 법인화 '시동'

이완식 위원장 등 위원 5명...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출범
3월말까지 창립총회, 6월8일까지 법인전환 마무리 목표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법정 법인화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전남도체육회는 21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전남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가 공식으로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전국의 240개 비법인사단 체육회는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전남체육회도 법인화 전환을 위한 첫 걸음으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전남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완식 의장이 위원장에 호선됐다.

위원회는 전이양 전남도체육회 부회장, 유인숙(주)유일 대표(제2대 전남테니스협회 회장 당선인), 유영후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 나양명 변호사가 법인설립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는 법인설립을 위해 체육회의 정관작성 및 법인설립을 위한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개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인 인가 취득 및 설립 등기 완료 등 전남도체육회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전남도체육회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31일까지 창립총회를 열고, 4월20일 이내 전남도에 법인인가 신청을 추진한다.

이후 마지막 단계로 전남도의 인가를 받아 오는 6월8일까지 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완료, 법인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체육회 법정 법인화는 전남체육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며 "법정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의 특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해 스포츠로 건강한 전남도, 전남도체육회가 있어 도민이 행복한 전남체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